

홍천향교 유묘를 옮겨 심어 자란 느티나무

	지정번호	강원-홍천-15		강원 홍천군 동면
	지정년도	2002		노천리 815-2
	관리기관	홍천		37 ° 40 ' 05.59 " N
	수령	270년		128 ° 01 ' 38.81 " E
	수고	20m		
	흉고둘레	4.8m(한쪽)		

2그루처럼 보이는 보호수(강원-홍천-15호) 느티나무는 덕우 자연마을 큰길가 덕우천 옆에 위치한다. 그래서 흔히 덕우느티나무라 부른다. 느티나무의 나이는 270년이다. 나무높이는 20m 정도, 가슴높이둘레(큰 것 한쪽) 4.8m 정도이다. 원줄기는 밑동에서 2갈래로 갈라져 2그루처럼 자란다. 갈라진 한 줄기는 높이 1m 정도에서 3갈래로 갈라졌고, 다른 줄기는 옆으로 누워 있으며 2갈래로 갈라졌다. 2009년에 지주대를 설치하였고, 2002년에 외과수술을 크게 하여 보호하고 있다. 생육상태가 양호하다. 마을에서 전승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250여 년 전에 순흥 안씨 19대손 세운이란 사람이 홍천향교의 느티나무 밑에 자라는 어린나무를 옮겨 심고서 정성껏 가꾸었기에 지금까지 잘 자라 노거수가 되었다. 그리고 옛날의 어느 날 마부가 느티나무에 잠시 말을 매어 놓고 쉬고 있었다. 말이 땅바닥의 잡풀을 뜯어 먹으려는 찰나에 갑자기 나무의 옆 가지가 벌어져 누우면서 말을 덮치려고 하였다. 그러자 말이 놀라 고삐를 끌고 주인을 버린 채 도망쳤다. 지금도 옆의 가지가 누워 자라는 것이 그 때문이라 한다. 또 다른 이야기는 이렇다.

누가 이 느티나무에 말을 매었는데 말이 갑자기 놀라 뛰며 고삐를 끊어서 뛰어나갔다. 말 주인이 이게 왜 그런지를 동네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어른들은 신기한 수구의 나무에 함부로 말을 매었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리고 말이 놀라면서 옆의 나무를 눕게 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에 느티나무잎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해의 흉작과 풍작을 예측하였다. 나뭇잎이 한쪽 가지에 나오지 않거나 늦게 나오거나 몇 층으로 나오는 해는 가뭄 등으로 마을 농사에 흉작이 온다. 반대로 한꺼번에 똑같이 나오는 해는 풍년이 든다. 2012년에도 잎이 잘 안 나오고 층이 많이 졌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해 봄에 가뭄이 많이 들었다. 마을 주민들은 가뭄이 있을 때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낸다. 느티나무는 마을에 들어오는 재앙이나 액운을 막아주는 지킴이 역할을 한다. 마을 사람들이 당산목으로 여기고 있지만 당산목이 아니라 주장하는 일부 주민도 있다. 느티나무 옆에는 '덕우정'이라는 정자가 있다. 마을 행사 때에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다. 초복 날은 느티나무 아래에서 초복 행사를 하였고, 예전에는 단오가 되면 그네를 매고 뛰었다.

